

PEOPLE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화순 희망약국, 나눔 문화 동참 300만원 상당 일반의약품 기부

화순군은 최근 희망약국이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 파스 2080개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희망약국은 지난 2022년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1000만원, 2023년 취약계층 파스 270만원 상당과 초등학생 대상 약물(마약) 중독 예방 교육 재능 기부에 이어 올해도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송지만 희망약국 공동대표는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어르신이 아프실 때 제일 먼저 찾는 의약품이 파스였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주 필요하다”며 “화순 군민 모두를 직접 챙기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는 9일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산불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복구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인철 첨단경영자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웅범 명예회장,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홍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문인 복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인철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 미주사무소

UCLA 대학서남도 맛·매력 홍보

전남도 미주사무소(소장 문창숙)는 ‘한울림 한국 문화 인식 그룹’이 지난 5일 UCLA 대학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서 전남 농수산물품과 주요 관광지, 남도음식을 홍보했다고 9일 밝혔다.

UCLA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올해 33년째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학생 주도 행사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겪는 경험을 연극, 케이팝(K-pop), 태권도 등을 통해 공연으로 승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행사 관계자와 참관객 등에게 전남도 아마존 브랜드관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오징어 튀김 스낵과 유자 주스 시음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전남도 대표 관광지와 남도음식을 선보였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UCLA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미국 현지에서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릴 좋은 기회”라며 “미국 현지인에게 전남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남 농수산식품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AI 앱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일 처리 가능”

김민수 스마트인재개발원 연구원, 10가지 AI 앱 소개
영상 요약·PPT 작성 등 시연…‘개인 비서’ 역할 기대

“인공지능(AI) 앱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업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김민수 스마트인재개발원 연구원은 9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MVG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서 ‘일잘러로 거듭나는 인공지능(AI) 앱 10가지’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수 연구원은 우선 신조어인 ‘일잘러’와 AI 앱의 기본 정의를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잘러’는 선배의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다”며 “AI 앱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의했다.

김 연구원은 직장생활을 이야기하며 릴리스(Lilys), 냅킨(Napkin), 네이버 클로바노트, 에

이닷 등 총 10가지 AI 앱 기능을 보여줬다.

김 연구원은 “AI 앱의 핵심은 맞춤형 서비스로, 업무 중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질 높은 자료를 만들려면 약간의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릴리스 앱은 영상 URL, 파일을 등록하면 영상을 이미지, 텍스트로 빠르게 요약해 주며, 냅킨은 글자를 표, 그림으로 보기 쉽게 만들어 준다”며 “생성형 AI의 기본언어가 영어인 워튼(Wrttn)은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만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해 블로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PPT 등의 초안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클로바노트와 에이닷을 소개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바노트는 회의, 강의, 인터뷰에서 오간 이야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며 “어떤



9일 광남일보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열린 광남일보 2025년 제1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서 김민수 스마트인재개발원 연구원이 ‘일잘러로 거듭나는 인공지능(AI) 앱 10가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회사는 글로벌노트를 통해 회의록, 일정 관리 등을 직원에게 공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 SK텔레콤이 개발한 에이닷(A.Dot)은 통화 중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통화가 종료되면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한다”며 “통화 중 일정에 관련된 내용은 휴대전화 캘린더에 자동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연구원은 AI 앱을 활용해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을 당부했다.

그는 “AI 앱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개인 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10가지 AI 앱 중 1~2가지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도의회, 산불 피해 경북지역에 위로 성금

의원·직원 모금액 1136만원 기탁…안동 시민분향소 찾아 조문도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사진)는 지난 8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1136만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

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일 전남도의회는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에 설치된 산불재난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을 전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방의회 간 상생과 연대의 뜻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균 의장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이 성금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10여 년간 지속적인 교류와 우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경북도의회와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해 매년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경북에 150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한 데 이어 2022년 경북 울진에 산불피해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나주 본사에서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농어촌공사,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

전문가 71명 구성…어촌·어항 사업 기술 자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일 나주 본사에서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사 임직원과 민간, 학계·협회, 공공 부문 대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해양수산지원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사는 어촌, 수산, 해양 분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3개 반(계획검토반, 기술지원반, BLUE-지원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과 현안 관련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

공한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71명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반에 탄력적으로 투입돼 어촌·어항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기술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과장은 “공사는 어촌·어항 사업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해양수산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동구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진)는 9일 신림교회(목사 이진규)로 부터 찰밥데이 ‘情다을 情돌봄 사업’ 일환으로 찰쌀(20kg) 15포를 후원받는 ‘찰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동구 학운동 지사협, 찰쌀 나눔 전달식

신림교회, 찰밥데이 사업에 후원

광주 동구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일 학운동 마을사랑채에서 ‘찰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찰쌀(20kg)은 15포로, 동구 윤림동에 위치한 신림교회에서 학운동 지사협 특화사업인 찰밥데이 ‘정(情) 다음 정(情)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구 신림교회 목사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지사협 사업에 감동 받고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진 학운동 지사협 위원장은 “찰밥데이 사업은 어르신에게 든든한 한 끼의 정을 나누는 사업이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신림교회에 감사하고 그 정성을 잘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연 학운동장은 “이번 기부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수 있었다”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운동 지사협은 각 아파트 주민과 동지사협 위원들 중심으로 17개 구역 50명의 ‘이웃지기 봉사단’을 구성, 월 700여명의 1인가구에게 찰밥 도시락을 매개로 정기적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서구, 영유아 ESG 환경교육 김기장 광주 서구청장이 9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열린 ‘어린이집 대상 ESG 환경교육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동신대 상담심리학과-영광군상담복지센터 협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최근 동신대학교 대정3관에서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정화)와 산학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동신대